

# 지역 건설업 아파트 분양 전국구 행진

## 중흥, 세종시에 1300가구... 호반, 동탄신도시에 922가구

광주·전남지역 주택건설경기가 바닥을 보이면서 지역 건설업체의 '전국구' 행진이 눈길을 끌고 있다. 중흥건설과 호반건설 등 지역 대표 건설업체들은 설 연휴가 지난 뒤 올 수도권 최대 분양시장인 경기도 동탄 2신도시와 세종시에 본격적인 아파트 분양에 들어간다.

7일 지역건설업계와 ㈜부동산캐브 등에 따르면 올해 세종시 첫 분양 사업자인 호반건설의 '호반베르디움 5차'가 608가구 모집에 1270명이 청약해 2.0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가운데 중흥건설이 세종시 두 지역에 총

1292가구를 분양한다. 중흥건설은 세종시 1-1생활권 M1블록과 1-2생활권 M1블록에 '중흥 S-클래스 4차 에듀힐스'와 '중흥 S-클래스 4차 에듀하이'를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1-1생활권 M1블록 중흥 S-클래스 4차 에듀힐스는 전용면적 84~96㎡(25~29평)의 중소형 아파트이며 지하 2층·지상 23층, 7개동 총 440가구다.

1-2생활권 M1블록 중흥 S-클래스 4차 에듀하이는 전용면적 84~96㎡(25~29평)의 지하 2층·지상 16~29

층, 14개동 총 852가구를 구성된다. 두 곳 모두 근린공원과 가깝고 국제고와 과학예술영재학교(예정)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중흥은 지난해 세종시에만 5개 단지, 4000여가구를 공급했다.

위례신도시, 관교신도시와 함께 수도권 최대 분양시장으로 꼽히는 동탄 2신도시 3차 분양엔 호반건설이 총 922가구를 일반분양한다. 호반건설은 A30블록에 '동탄호반베르디움'을 공급할 예정으로, 지하 2층~지상 25층 14개동, 전용면적 59~84㎡(18~25평)으로 구성된다.

단지와의 인접한 초등학교가 있어 도보 통학이 가능하고, 무봉산과 공원이 가깝다. 단지 내에는 골프장과 피트니스, 북카페 등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선다.

중흥은 세종시 외에도 광주 남구 행암동 효천2지구 S-1블록에 전용면적 84㎡(25평), 113㎡(34평)으로 구성된 '중흥S-클래스' 아파트 총 662세대를 일반분양한다.

중흥건설 관계자는 "3년 전 건설경기 악화 당시 전국적으로 택지 구입에 나서면서 공급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오는 6월에 경남 창원에도 분양이 들어가는 등 공격적 행보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코스피지수 1,935.26 (-0.93)	▼ 코스닥지수 502.12 (-0.44)	금리 (국고채 3년) 2.72% (0.00)	▲ 원·달러 환율 1,083.15원 (+0.05)
-----------------------------	---------------------------	-----------------------------	--------------------------------

## 12조4천억 태국 물관리사업 농어촌공사 우선사업자 선정

12조4000억원 규모의 태국 통합 물관리사업에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 등으로 구성된 한국 대표단이 10개 사업 구간에서 우선사업대상자로 선정됐다.

사실상 수주가 확정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향후 물관리 체계 정비에 관심이 높은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로의 진출기반을 확보하는

데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5일 태국정부 내각회의에서 발표한 태국 통합물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별 숏리스트(Short List)에 한국 대표단은 모든 사업구간에서 1위 후보로 발표됐다고 한국농어촌공사가 밝혔다.

태국 물관리사업은 2011년 대홍

수 이후 홍수예방을 위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저수지, 하천개선, 방수로 건설 등 10개 사업에 12조400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다. 초대형 프로젝트인 만큼 한국, 중국, 일본 등 업체 7곳이 치열한 수주경쟁을 벌이고 있다.

박재순 농어촌공사 사장은 "태국관 4대강 사업이라 불리는 이 사업에 한국대표단이 우선업체로 선정된 그 자체만으로도 치수사업에 대한 국제적 신뢰와 기술력에 대한 국제적 공인"이라고 평가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 올해 새 일자리 30만개 그칠 듯

## 자영업자 급감 등 전년보다 최대 15만개 감소 전망

올해 국내에서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가 30만개 안팎으로 작년보다 8만~15만개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경기침체로 자영업자가 크게 줄고, 중소기업 중심의 일자리 감소가 예상되는데 따른 것이다.

7일 금융투자업계와 한국은행, 통계청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취업자 증가 수는 2010년 32만3000명, 2011년 41만5000명에 이어 작년에는 43만7000명에 달했다.

그러나 올해는 고용시장 위축이 뚜렷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

국은행은 올해 취업자 수가 작년보다 30만명(1.2%)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작년 10월에 한국은행은 올해 32만명 증가를 예상했으나, 최근 경기 상황을 보고 하향 조정했다. 전년 대비 증가율로 보면 작년 1.8%에서 올해 1.2%로 0.6%포인트 낮아졌다.

현대경제연구원과 KB투자증권 등 일부 증권사 애널리스트들도 올해 고용 증가가 30만명 안팎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LG경제연구원은 올해 28만명 증가를 예상했다.

무상보육 실시로 보육 분야에서 월 평균 10만개의 일자리 창출 전망에도 불구하고 도·소매, 숙박, 외식업 등에서 자영업자 수가 급감, 전체적인 신규 일자리는 작년보다 15만개 이상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노동연구원도 올해 경제성장률이 작년보다 높아져도 고용 증가세는 꺾일 수밖에 없다며 신규 일자리는 작년보다 10만개 감소한 33만개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새 정부의 적극적인 고용 증대 정책이 효과를 가져

오면서 올해 35만명은 늘어날 것이라고 가장 낙관적인 전망을 했다.

올해 고용이 흔들리는 것은 무엇보다 경기침체로 작년 6월 이후 자영업자의 감소세가 뚜렷해졌기 때문이다.

최근 2~3년간 경제는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에도 상대적으로 고용만큼은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노년층과 주부 등 비경제활동 인구가 대거 자영업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면서 이뤄진 것이다.

새 정부의 고용확대 정책으로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고용이 늘어나고 대기업도 최소한 작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비해 경기침체와 양극화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중소기업은 고용 감소가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연합뉴스



“지역방위 수고하셨습니다” 광주은행 송기진 은행장은 설 명절을 맞아 6일 오후 광신구 도산동 공군제1전투비행단(당장 홍재기)을 방문해 추운 날씨에도 지역방위와 나로호 성공 발사를 위해 수고해준 군부대 장병들에게 50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광주은행 제공>

## 마케팅비용 분담 놓고 가맹점과 갈등 격화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또 중단

### 이달중순부터- 서민불편 예고

신용카드의 상시 행사용 무이자 할부 서비스가 이달 중순에 또 중단돼 서민 불편이 예상된다.

카드업계가 새해 들어 여론의 못매를 맞고 철회했던 무이자 할부 중단 조치를 다시 강행하기로 한 것은 대형 가맹점과 마케팅비 분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하나 SK카드 등 오는 17일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가맹점 또는 생활권의 업종에 대한 2~3개월 무이자할부 서비스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해당 업종은 연매출 1000억원 이상

인 대형 할인점, 백화점, 면세점, 항공사, 통신사, 온라인 쇼핑몰, 보험 등이다. 비씨카드, KB국민카드도 이달 말부터 상시 행사용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접는다.

삼성카드 등 일부 카드사는 우수 고객에게 보유 카드 여부와 관계없이 등급별로 2~3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주는 제도마저 폐지하기로 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상시 행사용 무이자 할부 중단 시 고객 고지에 미흡한 면이 있어 카드사들이 이달 중순 또는 말까지 자체 비용으로 한시 행사를 했다”면서 “무이자 할부 행사가 이번에 끝나면 추가 연장은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무이자 할부 문제가 불거진 것은

새해 발표한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때문이다. 이 법은 무이자 할부에 들어가는 마케팅비용을 카드사와 가맹점이 함께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카드사들이 그동안 전액 맡아온 비용 분담을 매출 1000억원 이상의 대형 가맹점이 거부했다.

카드사들은 대형 가맹점과 벌어진 협상에서 진전이 없자 지난 1월 1일부터 상시 행사용 무이자 할부를 전격 중단했다. 이후 충분한 고지가 없었다는 비난이 쏟아지자 카드사들은 얼음 만에 무이자 할부를 재개했다.

카드사들은 상시 행사용 무이자 할부를 다시 중단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항변한다.

/연합뉴스



## ‘드림투게더 멘토링’ 배식 봉사

현대차 광주·전남본부

소년소녀가장들의 올바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인 ‘드림투게더(Dream Together) 멘토링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는 현대자동차가 설을 맞아 뜻 깊은 봉사활동을 펼쳤다.

현대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최인규)와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민호)는 7일 드림투게더 멘토링 캠페인의 ‘멘토’와 ‘멘티’를 초대해

광주시 남구 서동의 분도와안나개 미꽃동산(사람의 식당)에서 배식과 설거지, 청소지원 등을 실시했다.

드림투게더 멘토링 캠페인은 현대차 국내영업본부 1만여 임직원들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소년소녀가장들의 멘토가 돼 바른 품성과 리더십을 갖춘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임동률기자 exian@

현대차 드림투게더와 함께하는 봉사활동에 참가한 박기성 현대차 노조 광주전남 판매지회장(사진 왼쪽), 최인규 현대차 광주지역본부장(사진 중앙), 이민호 현대차 전남지역본부장(사진 오른쪽)이 7일 광주 남구 서동의 식당에서 식당 배식 봉사를 하고 있다. <기자동차 제공>



# 소망, 행복

지난 한해 동안 엘리시아를 변함없이 사랑해주신 고객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객님의 사랑과 관심에 보답하기 위해 엘리시아는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상무지구 세정아울렛 3층 ☎ 062\_385\_3000

